



# 오늘날의 삼칠일

김용수/대한매일 차장

**일** 마전 산후조리원이 온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산후조리원에 — 서 신생아들이 잇따라 사망,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매스컴은 연일 산후조리원의 위생실태 등을 고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급기야 산후조리원에 대한 질타는 정부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감독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의무가 전혀 없었다. 산후조리원은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을 규제할 관련 법규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신생아 관리지침 배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법의 테두리 내에 두기 위해 신고제 혹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시설이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산후조리를 맡아줄 사람이 없게 되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용자의 80%가 중산층 이상이다. 돈 많은 주부들이 출산 후 몸매관리 등을 위해 찾는 곳이 돼 버렸다.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특히 '삼칠일'이라고 해서 21일동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막 태어난 신생아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재의 산후조리원은 어떤가? 산모들은 대부분 각방을 쓰

지만 정작 신생아들은 한군데에 모여 있다. 이들은 항상 세균 및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은 국민들의 여론만 의식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산후조리원이 실내 낚시터나 스탠드바처럼 일시적인 영업형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를 면밀히 검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양성화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면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모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